

‘스타게이트’ 합류 기대감… 삼성전자, 이달 주가 9% 급등

5만5600원… 전거래일비 3.54% ↑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연장에
기관·외인, 1589억·436억 순매수
1분기, 실적 저점 전망에 투심 자극

삼성전자의 주가가 10일 장중 4%대 상승하는 등 이달들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역대급 인공지능(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류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4% 상승한 5만5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던 지난 3일 이후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4일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9.02% 급등했다. 다만 지난 7일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의 혐의로 기소했던 이 회장에 대해 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각)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에 상고했다. 사법 리스크다 다시 연장된 셈이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진 뒤인 10일에도 삼성전자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각각 1589억, 436억원 순매수하며 주가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

지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들어 7일까지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조4362억원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다. 동일 기간 2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은 현대차로 순매수 금액은 3374억원 수준이다.

더불어 삼성전자에 대한 ‘빚투(빚내

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잔고 금액은 94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약 1조원을 달성한 이후 최고치다. 연초 8975억원 대비로는 5.36% (481억원) 불어났다.

올해 1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 저점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투심이 자극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해 기술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 스타게이트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돌파구가 열린 모습이다. 스타게이트는 향후 4년간 5000억달러(730조원·연평균 182조원)를 투자하는 미국의 대규모 AI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그룹, 오픈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약 1000억달러(144조원)를 출자한다.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에서 3차 회동을 진행했다. 시장에서는 저비용 AI 모델인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의 등장으로 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게이트 전략 파트너로서의 최대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딥시크와 관련해서도 김 연구원은 “딥시크의 등장은 시장 우려와 달리 오히려 AI 산업에 긍정적이다. 딥시크 쇼크에 따른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설비를 확보한 삼성전자는 고객 요구에 따른 맞춤형 AI칩과 메모리 적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올해 신규 상장사 8곳 중 7곳, 공모가 하회

상장 첫날부터 30% 넘게 급락하기도
‘대주주’ LG CNS도 부진… 시장 충격
전체증시 침체, 고평가 논란 등 영향

올들어 신규 상장 기업들의 부진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달 말까지 모티브링크, 엘케이캡, 위너스, 더즌, 심플랫폼, 티엑스알로보틱스, 대진첨단소재, 엠디바이스 등 9개 기업이 일반 청약 앞뒤로 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한 8개 기업(스팩 제외) 중 7개사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특히 데이컴퍼니(-40.00%), 아이지넷(-37.79%), 와이즈넷(-36.47%) 등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30% 넘게 급락했다. 반면, 유일하게 상장 당일 공모가를 상회한 종목은 아스테라시스로, 공모가 대비 44.35% 상승했다.

대형 IPO도 예외는 아니었다.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 기대주로 꼽혔던

LG씨엔에스(LG CNS) 역시 지난 5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9.85% 낮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액 최상단에 공모가를 확정, 일반청약에서는 21조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으는 등 관심을 끌었으나 정작 상장 후 주가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상장 이후에도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데이컴퍼니는 상장 후 이날까지 43%가량 하락했으며, 미트박스(-42.16%), 아이지넷(-34.71%), LG씨엔에스(-10.02%) 등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모가를 방어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LG씨엔에스의 부진은 공모주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과거에는 공모주가 상장 초반 급등하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공모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와 발행사의 높은 공모가 희망밴드 산정, 기관 투자자의 단기차익을 노린 수요예측 참여 등으로 공모가가 ‘뺨뺨기’되면서 시장가와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IPO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올해 IPO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체 증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점, 그리고 공모가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라며 “현재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나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낮아 상반기 내 IPO 시장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



(현지시간) 지난 3~4일 미국 페어몬트 하와이 호텔에서 열린 ‘미래에셋 ETF Rally 2025’에서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과 글로벌 ETF 임직원들이 ETF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박현주 “시장혁신 이끌 상품 만들어야”

(미래에셋그룹 회장)

美서 ‘ETF 랠리 2025’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지시간 3~4일에 걸쳐 미국 페어몬트 하와이 호텔에서 ‘ETF 랠리(Rally) 2025’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ETF 랠리’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주요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ETF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4년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 총 순자산은 202조원에 달한다. 이번 ETF Rally에는 해외법인 CEO와 운용, 상품, 마케팅 등 ETF 주요 임직원 약 80명이 참석해 법인별 2025년 전략을 소개하고, ETF 비즈니스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전략가(GSO) 박현주 회장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이른바

‘킬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존에는 없던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 ‘글로벌 엑스’와 AI 법인 ‘웰스퍼트’가 협업한 그룹의 첫 AI 기반 상품 ‘Global X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본드 액티브(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Active)’가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또 자국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및 마켓 메이킹 회사인 ‘GHCO’와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별 AI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미래 플랫폼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원정음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PB팀장 대상 리더십 세미나

위기극복 위한 ‘팀장 리더십’ 강조

NH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 PB팀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윤병운 사장, 이재경 리테일 총괄부본부사장을 비롯한 130여명의 PB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제2기 트럼프 시대의 시작’ 등 변동성이 커진 국내외 시장상황에서 영업현장의 차세대 리더인 PB팀장들과 회사의 경영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 견인

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운 사장은 PB팀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영업 환경 지원 약속 등 성과 향상을 독려했다.

세미나에서는 조용민 언바인드랩 대표의 ‘성과를 만드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강연도 진행했다. 조 대표는 “AI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 시대에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팀원 스스로 솔루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팀장의 리더십이 높은 성과와 팀의 성장을 돕는 열쇠”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팀장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 조선, 엔터, 로봇업종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이 PB팀장들과 가진 ‘PB팀장 리더십 세미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과의 회의시간도 가졌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국내외 시장환경이 어려워졌지만, 영업현장의 중간 리더인 PB팀장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음 기자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금액 ‘26조6790억’

전년비 건수 3.5% ↓, 금액 6.6% ↑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금액이 전년 대비 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규모는 총 1062건, 26조6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3.5% 감소하고 금액은 6.6% 증가했다.

/원관희 기자